

# 고흥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



고흥군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5월 2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단체, 군의원, 문화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발족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법정 문화도시 정책의 취지와 고흥군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 정책방향과 조성

계획 등 관련 중요시책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고흥군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시 5년간 국비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사업이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고흥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문화도시 센터 설립 등 고흥문화도시 거

## 5년간 총 200억원 투입하는 문체부 핵심사업 문화도시 조성 정책방향·추진체계 기반 구축

버너스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촉된 문화도시 추진위원들은 2년의 임기 기간 동안 군민들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사업 검토, 심의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고흥군은 역사, 문화예술, 자연환경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문화도시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위원들의 문화도시 준비과정 자체가 고흥의 문화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사람이 모이는 즐거운 땅, 모험 문화도시 고흥(Go, 興)'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고흥군의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기 삶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산업 증진과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첫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문화도시 모험학교'가 오는 6월 2일부터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된다.

7월 28일까지 총 12회,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이루어질 이 모험학교에서는 지역문화의 가치 발굴과 문화사업 기획, 지역 문제해결 등에 관한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흥군민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 (<https://forms.gle/YcwRrfzs4Fu942GfA>)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070-7729-6052).  
기동취재본부

## 김철우 보성군수, 민주 송영길 대표 만나 핵심 현안 협조 요청 광주송정~보성 간 고속전철 조기 개통 등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을 만나 광주송정~보성 간 고속전철 조기 개통 등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국회 등지를 방문, 송 대표와 김승남 국회의원 등을 만나 ▲광주송정~보성 간 고속전철 조기개통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갯벌'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2500억 원) ▲보성읍 도시재생사업(135억 원) ▲보성 하수처리장 증설(200억 원) ▲국도18호~보성읍 진입도로개설(150억 원) ▲보성별교~순천만 남도남만길 명품화 재생사업(365억 원) ▲보성 울포항 국가어항 지정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보성 다항 이십리길 조성(10억 원)과 득량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



터 조성(29억 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역 경쟁력 제고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현안사업"이라며 "당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경전선 고속 전철화 사업에서 보성~순천 구간이 조기 개통돼야만 목표에서 보성을 거쳐 부산까지 가는 남해안 고속 전철화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고속주행이 가능해진다"며 당 차원의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 광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잔여분 추가 모집

광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차 공고 선정 후 예산 잔여분에 대해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층 사업장(4, 5층 우선지원)에 대해 지원하며, 총사업비 20억 원(잔여분 6억 1백만 원)으로 사업장별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자부담 10%로 시행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3년 이내에 설치한 시

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직접 환경 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광양시청 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는 광양시청 홈페이지([gwangyang.go.kr](http://gwangyang.go.kr), 공고 2021-1043호(2021.5.20.))에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 061-797-2331)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진행정책팀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전시공간 순천기적의도서관,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운영



순천기적의도서관은 최근 '미술로 만난 클립트와 마티스'라는 주제로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작품 20점을 전시하고 있다.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은 어린이들의 잠재적인 능력과 생각을 키우는 창의적인 미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어린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2020년 문을 열었다.

올해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화가들과의 대화'라는 주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어린이들의 작품들로 4차례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클립트와 마티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그림과 조형물로 전시장을 채웠다.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은 순천기적의도서관 1층 부모교육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시간 내에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운영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전시실 밖에서도 유리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관계자는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여수시, 노후 상수도 정비해 새는 수돗물 잡는다

여수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383억 원과 지방비 383억 원, 총 사업비 766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노후화 된 상수도관 56km를 교체하고 193km에 이르는 상수도관의 누수 탐사 및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상수

도 관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수도 관로의 현대적 관망운영 시스템 구성과 재정비로 수돗물 공급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 감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블록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배수지, 밸브류 등 시설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b>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b>	 <b>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b>	 <b>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주세요!</b>
---	---	--

